

광주·전남 체육 꿈나무 전국체전 '맹활약'



광주·전남 체육 꿈나무들이 전국소년체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목포를 비롯한 전남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대회 이틀차인 26일 오후 4시 기준, 광주는 총 36개, 전남은 총 3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사건경기로 치러진 기계체조에서 금 2개를 마리 확보한 광주는 현재까지 총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은메달은 11개, 동메달은 12개다.

뛰어난 실력으로 다관왕에 오른 선수들도 눈에 띈다.

광주체중 이다은은 역도에서 인상, 용상, 합계 모두 정상에 오르며 3관왕에 등극했다.

이다은은 지난 25일 역도 여자중부 81kg급 인상에서 77kg로 1위, 용상에서 98kg로 1위를 기록했고 총 175kg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하며 합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광주체중 이루리는 근대3종에서 여자중부 개인전, 단체전, 계주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며 3관왕을 차지했다. 단체전과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지아, 송현서, 양보민은 2관왕에 올랐다.

이루리, 이지아, 송현서, 양보민은 지난 25일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 3351점을 획득해 2위 서울(3188점)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이들은 계주 결승에서는 675점을 기록하며 2위 서울(651점)을 밀어내고 정상에 올랐다.

개인전에서 이루리는 결승에서 862점으로 2위 서울체중 김지우(854점), 3위 부산체중 안효겸(846점)을 뒤로하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세부종목(개인전, 단체전, 계주) 3개의 메달을 모두 휩쓴 이루리는 이번 대회 근대3종 여자중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전남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8개를

광주 금메달 13개 등 36개...역도 이다은·근대3종 이루리 '3관왕'
전남 금 14개 등 38개 메달...구례여중 최지우 육상 400m 3연패

합승했다.

특히 육상에서는 제51·52회 육상 여자 중등부 400m에서 정상에 오른 구례여중 최지우가 이번 대회에서도 56초68의 기록으로 1위를 거머쥐며 3연패에 성공했다.

멀리뛰기와 포환던지기에서도 금메달이 나왔다. 이하은(광양백운중)이 여자 중등부 멀리뛰기에서 5m55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태빈(목포하당중)도 여자 중등부 포환던지기에서 13m64로 1위를 차지했다.

수영에서도 전남 초등부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여수한려초 임지윤은 여자초부 자유형 100m에서 1분06초98로 1위를 기록했고, 영암초 문승유는 여자초부 평영 100m에서 1분16초9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전남초등검객들도 남초부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뒀다.

김단우·선수연(이상 벌교검도관), 김찬휘(용당검도관), 박희찬·오승현(이상 순천용당초), 손준혁(좌야초)으로 구성된 전남 선수단은 25일 영광 스포터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초부 결승에서 경기를 겪고 1위를 차지했다.

선수단을 우승으로 이끈 김재석 감독은 "모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다"며 "이번 소년체전을 위해 우리 선수단이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은 28일까지 이어진다.

/목포=김진아 기자 jingg@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자유형 100m 금메달 여자 한려초 임지윤(왼쪽)과 나주 라온초 박민재.



평영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영암초등학교 문승유.



광주체중 근대3종 여자중부 선수단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시상대에 올랐다.



검도 남초부 우승을 차지한 전남 선수단.

"장미란 선수처럼 성공할래요"

'역도 3관왕' 광주체중 이다은

광주체중 이다은(-81kg급·3년·사진)이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역도 3관왕에 올랐다.

이다은은 지난 25일 완도농어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역도 여자중부 경기에서 인상과 용상, 합계 종목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며 총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인상에서 77kg로 1위, 용상에서 98kg로 1위를 기록한 이다은은 총 175kg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하며 합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다은은 "주변에서 '너는 무조건 금메달 판다', '다른 애들 신경쓰지 말고 너한테만 집중해라'는 응원을 많이 받았다"며 "즐거면서 경기가 한 것 같다. 3관왕에 오르게 되어 기분이 너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 소년체전에서 인상에서 은메달, 합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이다은은 더욱 성장한 몸과 마음으로 이번 대회에 나섰다.

이다은은 "지난 동계 훈련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열심히 해서 기록이 쑥쑥 늘었던 것 같다"며 "훈련할 때 아이라 코치님께서 자세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보고 잡아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도
2024. 5. 25 ~ 5. 27



"아직 더 많이 성장하고 싶다"고 말한 이다은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미란 선수처럼 성공하는 것이 꿈이다. 기록을 계속해서 깨나가며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완도=김진아 기자 jingg@kwangju.co.kr

"개인최고기록으로 3연패 기뻐요"

'육상 3연패' 구례여중 최지우

전남체중 윤제리 동메달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최지우(구례여중)가 여자 중등부 400m 3연패에 성공했다.

최지우는 지난 25일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된 여자 중등부 400m 56초68의 기록으로 우승하며 대회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최지우는 지난 제51·52회 소년체전에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었다.

최지우는 "바람이 세게 부는 지점이 마지막 100m라 평소보다 더 힘들었지만, 이번 경기에서 개인최고기록을 세웠다"며 "지난 2022년 400m에 첫 도전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결과를 낼 줄 몰랐는데 3연패를 달성하게 돼 기쁘다. 후회없는 3연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때 여학생들 중 달리기가 제일 빨리 우연히 구례군에서 열리는 대회를 나갔다 현 코치님을 만났다. 한결같이 열과 성을 다해 가르쳐주시는 모습 덕에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함께 시상대에 오른 3위 윤제리(전남체중)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내비쳤다.

최지우는 "(윤)제리와는 같은 전남 소속이다 보니 함께 대회에 출전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말했다.



최지우(왼쪽)와 윤제리.

최지우와 함께 400m에 출전한 윤제리도 58초53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따냈다.

그는 "(최)지우와 내가 이번 경기에서 둘다 PB(개인최고기록)를 세운 것만 해도 기쁘게 함께 시상대에 오를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제리는 또 "노력한 만큼 그대로 보여진다는 것이 육상의 매력 포인트"라며 "1분대를 뛰던 나를 58초대까지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선생님 두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지우와 윤제리는 26일 열린 육상 여자중부 1600m 계주에서는 3분58초43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뒀다.

/목포=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남자 양궁, 월드컵 금

한국 남자 양궁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최강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자랑했다.

남자 양궁 대표팀의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은 26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리커브 남자 결승에서 독일을 5-1(57-55 56-53 56-56)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23일 준결승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결승에 오른 남자 대표팀은 독일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쳤다.

김우진-이우석-김제덕 순으로 활을 쏜 한국은 큰 실수 없이 꾸준히 9~10점만을 쏘며 점수를 쌓았고, 독일에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우승했다.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준우승했던 남자 대표팀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월드컵 2차 대회에서 1위에 올라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청신호를 켜다.

여자 양궁 대표팀의 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은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슐오프 접전 끝에 중국에 4-5(54-54 55-55 56-54 52-56 <29-29>)로 저 은메달을 따다.

여자 대표팀은 이날 임시현, 남수현, 전훈영이 차례로 활을 잡았다.

한국은 중국과 첫 두 세트에서 팽팽히 맞서며 나란히 세트스코어 1점씩 나눠 갔다.

세 번째 세트를 따내며 4-2로 앞서 나갔지만 네 번째 세트를 내줘 4-4가 됐다. 승부는 슐오프로 이어졌다. 점수는 29-29로 동률이었지만, 중국의 화살이 과녁의 중심에 더 가까워 아쉽게 패했다.

여자 대표팀은 월드컵 1차 대회에 이어 2연속 준우승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비베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